

백양사유래와 쌍계루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이 넘치는 해설사 박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와 주신 천년고찰 백양사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전 백제 무왕 33년 서기 632년에 여환선사가 뒤에 있는 산이름을 따서 백암사라고 창건하였습니다. 고려시대때 중연선사가 백암사를 중창 하면서 티없이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정토사상을 본받고자 정토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선조때 백양사라 부르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양선사가 법화경을 설법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왔습니다. 3일째 되는날 흰양이 나타나 스님의 설법을 듣기 시작하였으며 7일째 법회가 끝나는날 스님의 꿈속에 흰양이 나타나 스님 저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흰양으로 지상에 내려 왔는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우쳐 천상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하고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설법을 하던 곳에 가보니 흰양이 죽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흰백자 양양자를 써서 백양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양사내에는 운문암, 금강암, 영천암, 약사암, 천진암등 열 개가 넘는 암자가 있는데 모두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왕봉 아래 자리잡고 있는 운문암은 북의 금강산 마하연 남의 백암산 운문암이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공부하시는 큰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유서깊은 선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이곳은 백양사 일주문 앞에 있는 누각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않는곳 바로 시.서.예를 읊으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약사암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천진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는 지점에 지어졌다 하여 두쌍자 계곡계자를 써서 쌍계루라 이름이 지어 졌습니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쌍계루에서 자연을 보며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같은 대유학자들도 이곳 쌍계루에 시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바로 국사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서로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 죽음까지 불사한 사이인데 어떻게 이곳에 함께 글을 남겼을까요?

바로 백양사의 스님이신 각진국사께서 고려말의 명문가인 고성이씨 집안이였습니다. 각진국사이신 동생인 행촌 이암선생이 목은 이색의 스승님이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당시 호난으로 유배 온 정도전에게 각진국사의 사촌동생인 청수스님이 부탁하여 정토사 교루기를 써주셨으며 목은 이색이 쌍계루의 이름을 지었으며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쌍계루 시를 지어 주셨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쌍계루 시를 지어 주신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쌍계루시의 운을 따서 300여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계루 현판에 시들이 걸려 있는데 제목은 모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쌍계루 입니다 쌍계루시는 7언 율시로 맨처음 지어진 원운 쌍계루 시는 바로 이시로서 포은 정몽주선생님 지으셨으며 그뒤를 이어 유학자들이 운을 따서 지으셨으며 두두두두 맨마지막으로 지으신분이 2003년 조순 전 총리께서 이곳 백양사 쌍계루에 오셔서 쌍계루 시를 지으셨는데 바로 이 시입니다. 먼저 포은 정모주 선생님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운 쌍계루 구시금견 백암승하니 파필침음 괴불능이라 지금 시를 써달라 청하는 백암승을 만나니 청수기루 명시중하니 목옹작기 가환중이라 청수가 누각을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은 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이 더하네 연광표묘 모산자하니 월영배회 추수징이라 노을빛이 아늑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물이 맑구나 구향인간 변열뇌하니 불이하일 공군등이라 오래동안 인간에게 시달렸으니 언제인가 옷을 벗고 그대와 함께 올라와 불까하노라 하고 시을 읊었습니다. 박수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 훌륭한 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쌍계루와 자연의 힘

이 아닐까요 다음은 맨마지막에 지어진 조순 전총리의 시를 보겠습니다. 백양사의 숨겨진 보물 보이시나요 네 이것으로 백양사 유래와 쌍계루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